

3·1운동은 기독교 신앙운동이었는가?:

성경해석과 3·1운동

Was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Christian Practice?:

Biblical Interpretation and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배정훈

고신대 (신학과 교수)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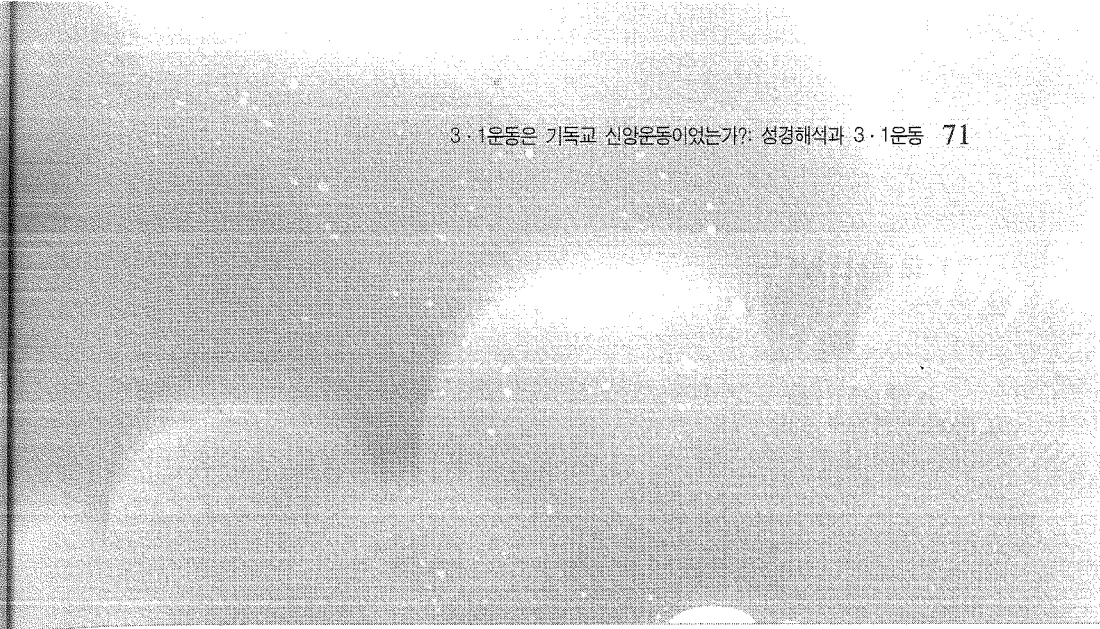
1. 들어가면서 | 75
2. 역사적, 신학적 배경 | 78
3. 준비과정과 기독교의 참여 | 84
4. 신앙적 실천 | 92
5. 나가면서 | 98



요약

3·1운동은 기독교 신앙운동이었는가?: 성경해석과 3·1운동

올 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이다. 본 논문은 3·1운동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이 민족운동을 기독교 신앙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것이다. 어떻게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기독교 신앙과 연결될 수 있는가? 이를 다루기 위해 이 논문은 프뤼리히가 제안한 ‘성경해석사적 방법론’으로 3·1운동에 접근한다. 이 접근법은 성경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해석사적 방법론에 따라 성경이 3·1운동이라는 민족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이 운동의 기독교 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시위 참가자 수나 확장에서의 기여와 같은 외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3·1운동의 이념과 방법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동기 면에서도 성경의 영향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3·1운동은 단지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정치, 사회적인 운동만이 아닌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정치, 사회적 운동을 성경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곧 일반역사에 기독교의 정신을 불어넣어 기독교 신앙 운동으로 변혁한 것이다.

*Was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Christian Practice?:
 Biblical Interpretation and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주요어

3·1운동, 성경해석사로서의 교회사, 기독교 신앙운동,
 성경과 3.1운동의 동기, 이념, 방법

Abstract

Was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Christian Practice?:
 Biblical Interpretation and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Assistant Professor, Jung-hun Bae

This year marks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This article will investigate whether the national movement can be interpreted as a Christian movement by paying attention to the connection between the March 1st movement and Christianity. How can the extremely realistic and political issue of national independence and liberation be associated with the Christian faith? To address this, this paper approaches the March 1st movement with the methodology of the histo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proposed by Karlfried Freirich. This approach is to identify how the Bible has influenced our thoughts and actions. We will look at how the Bible influence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movement, the March 1st movement by using this methodology and evaluate the Christian nature of this movement. Our findings will demonstrate that the influence of the biblical teachings are

reflected in the ideology and method of the March 1st movement and the motives of the Christians involved. In this sense, this movement can be seen as a resistance based on Christian faith, not just a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 to escape oppression. Christians reinterpreted this political and social movement from the biblical point of view. In other words, they transformed this movement by assigning Christian spirit to it.

Keywords |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Church History as the History of Biblical Interpretation, Christian Practice, Bible and the Motives, Ideology, and Method of the Movement.

1. 들어가면서

올 해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 되는 해이다. 이만열에 따르면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공원과 태화관, 그리고 전국 9개 지역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하면서 시작하여, 그 뒤 1년여에 걸쳐 우리나라 안과 만주·연해주 등 해외에서까지 확산된 거족적인 항일민족독립운동”이다.¹⁾ 이 운동은 일제의 무단통치와 폭정에 맞서서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외친 사회, 정치적 투쟁으로 이해되어왔다. 3·1운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이 측면은 부정될 수 없다.²⁾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러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일각에서는 기독교와 3·1운동의 연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와 같은 시각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기독교인들이 신앙적인 동인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 혹은 민족의 구성원으로 민족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다. 즉, 개인의 신앙과 상관없이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국가적 정치행위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비록 3·1운동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참여했지만 이 운동의 조직, 이념, 행동 방향 등에서 신앙의 정신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는 3·1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기독교 지도자들의 모호한 행동 때문이다. 민족대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신석구 목사는 목회자로서 정치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부와 천도교와 협력하는 것의 타당성 등으로 인해 3·1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한 동안 망설였다. 또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16명 가운데서 3명, 즉 유여대, 길선주, 김병조 목사가 운동이 실행된 3월 1일 선언식에는 불참했다. 이러한 행동들로 인해 몇몇 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의 진위성을 의심어린 눈으로 보았다.³⁾

1)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8.

2)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기독교사상』 34 (1990), 133.

본 논문은 3·1운동과 기독교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이 민족운동을 기독교 신앙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볼 것이다. 어떻게 민족의 독립과 해방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기독교 신앙과 연결될 수 있는가?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를 기독교의 이념과 믿음, 그리고 사상에 근거한 “신앙적 현실 참여”로 볼 수 있는가? 아니면 기독교가 항일운동을 위한 수단이 되었는가? 만일 3·1운동이 신앙운동으로 규정될 수 있다면 어떤 근거에서 그런 것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이 주제는 많이 다루어졌고 어느 정도 일치된 합의가 이루어졌다. 3·1운동이 민족의 아픔과 열망을 끌어안은 기독교의 숭고한 운동이라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의 준비와 투쟁단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것의 이념과 방법론을 결정하는데도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⁵⁾

3)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10-11.

4)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33-34.

5) 함석헌은 1979년 삼일운동 60주년을 맞이하여 이전까지의 연구를 평가하면서 이 운동의 기독교적 성격을 간파하고 있는 점에 한탄한다. “3·1운동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글들을 보면 답답해 견딜 수가 없다. 민족정신이요, 민주정신이요, 반항정신이요, 밖에서 왔으니 안에서 나왔으니 하지만, 왜 간단명료하게 있는 사실대로 파악하지 못할까? 한 말로, 기독교 신앙 없이는 3·1운동이 없다. 이것은 설명도 해석도 아니요, 사실의 지적이다”(함석헌, “3·1운동과 기독교 신앙,” N.C.C. 1979년 3월 회보, 손은실, “3·1운동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공감적 선교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7 (2019), 287에서 재인용).

1980년 이전에도 이 주제에 대한 연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많은 연구들이 나왔다. 대표적인 연구서 목록은 다음을 참고하라.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종교연대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2017), 108-109, 각주 1번. 또한 박용규, “역사 사료적으로 살펴본 3·1운동 관련 ‘문헌,’” 『신학지남』 86 (2019), 113-89, 가 삼일운동과 관련된 1차 자료와 한국사와 한국교회사 학계에서 나온 연구물들을 목록화하고 면밀하게 정리하였다. 김태형, “삼일운동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력: 신학, 심리학, 그리고 목회상담적 관점,” 『장신논단』 51 (2019), 39-59, 은 흥미롭게도 3·1운동에 미친 기독교의 영향력을 몰트만(Jurgen Moltmann)의 신학과 프랭클(Viktor Frankl)의 심리학 그리고 캡스(Donald Capps)의 목회상담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인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에 기초하되 ‘성경해석사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프뤼리히(Karlfried Froehlich)는 프린스턴 신학대학원 취임연설에서 교회를 성경해석의 역사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에벨링(Gerhard Ebeling)에 의해 제안된 ‘성경해석사로서의 교회사’(Kirchengeschichte als Geschichte der Auslegung der Heiligen Schrift)라는 논제를 발전시키면서 이 방법론은 단지 어떤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사를 넘어서 성경이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 변화, 발전시켜 나갔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⁶⁾ 프뤼리히는 이 역사기술론의 대표적인 예로 마리아론을 제시했다. 초대교회의 마리아의 처녀성에 대한 교리는 몇 개의 구절(마 1:23; 눅 1:27, 29)에 근거한 상상력과 당시의 특수한 역사적인 상황으로 인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⁷⁾ 본 연구는 성경해석사적 방법론에 따라 성경이 3·1운동이라는 민족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 이 운동의 기독교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어떠한 인물, 시기, 단계 등에 집중하기 보다는 3·1운동의 준비부터 실행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이전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서 성경해석사

6) Karlfried Froehlich, “Church History and the Bibl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1 (1978), 217-14. Cf. Gerhard Ebeling, “Kirchengeschichte als Geschichte der Auslegung der Heiligen Schrift,” in *Wort Gottes und Tradition: Studien zu einer Hermeneutik der Konfessionen*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64), 서원모, “성경 해석과 역사 - 시리아 설교: “요나와 니느웨인의 회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10 (2001): 58에서 재인용. 서원모는 이 관점에 따라 시리아 교회의 요나서 설교를 분석했다. 또한 다음의 책도 참고하라. Diarmaid MacCulloch, *Christianity: The First Three Thousand Years*, 박창훈의 2명역, 『3천년 기독교 역사 1-3』 (서울: CLC, 2013). 프람스마(Louis Praamsma), *De Kerk Van Alle Tijden: Verkenningen in het Landschap van de Kerkgeschiedenis*, deel 1-4 (Uitgeverij: T. Wever, 1979), 는 세계교회의 인물과 사건을 성경에 기초하여 평가함으로써 규범적인 역사서술을 시도하였다.

7) Froehlich, “Church History and the Bible,” 222-23. 초기 프란체스코 수도회, 중세의 폭군 정치에 의한 살해, 로마네스코 예술작품, 초기 영국 자국 문학의 발전과 같은 다른 예도 언급되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Froehlich, “Church History and the Bible,” 223).

적인 자취를 추적할 것이다.

먼저 3·1운동의 역사적, 신학적 배경을 분석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민족적인 저항운동이 일제의 강압적인 폭정에 대한 반작용이며, 특별히 신앙의 자유를 추구한 운동이라는 점과 한말부터 지속되어 왔던 교회의 민족운동을 살펴볼 것이다. 그 후 3·1운동의 준비과정에서의 기독교의 역할을 설명할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기독교 민족대표 16인의 신앙적 참여 동기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중투쟁단계에서의 기독교의 영향력을 탐구하면서 3·1운동의 이념과 방법론에 준 기독교의 영향을 고찰할 것이다. 또한 3·1운동의 준비과정과 전개과정을 설명하면서 여기에 참여한 기독교인의 수와 역할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성경의 영향을 상세히 분석할 것이다.

2. 역사적, 신학적 배경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일제의 무단적 주권탈취와 강압적인 무단통치에 있다. 19세기 말부터 조선의 국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한 일본은 당시 열강과의 협조와 묵인 아래서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본격적으로 한국의 내정에 간섭하기 시작했다. 일제는 헤이그특사사건을 빌미로 고종황제를 강제 퇴위시키고 1907년 7월 정미7조약을 통해 한국의 내정권까지 몰수하고 군대를 해산시켰다. 그 후 1910년 8월에 무단적으로 한일합병이 이루어졌고 총독부 설치와 함께 무단식민통치가 시작되었다.⁸⁾

8)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개정판 (서울: 기독교문사, 2011), 27;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12-13.

국권을 잃은 조선을 상대로 일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 국가의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한국인들의 자유를 뺏고 불법적인 수탈을 자행했다. 3·1운동 중이던 1919년 5월에 미국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위원회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는 일제에 대한 저항운동의 배경이 된 일제의 행태를 12가지로 분석하였다.

- (1) 한국인의 독립에 대한 갈망 (2) 헌병경찰제도의 억압과 폭력
- (3) 민족성을 제거하려는 일제의 통치 (4) 행정 및 사법기관에서의 한국인 배제와 차별 (5) 임금, 교육 등에서의 차별 (6)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박탈 (7) 종교의 자유 제한 (8) 해외여행과 유학의 제한
- (9) 토지의 수탈 (10) 사창제도와 마약의 도입으로 인해 한국인의 도덕성 저하 조장 (11) 한국인의 만주로의 강제이주 (12) 사회 전반에 일본인을 위한 제도 개선, 그와 반대로 한국인에 대한 착취⁹⁾

몇 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헌병경찰제도로 인해 한국인들에게 자유와 권리는 보장되지 않았고 경제영역에는 광범위한 약탈이 있었다.¹⁰⁾ 일제는 1912년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하여 국유지와 소유지와 불분명한 토지를 모두 빼앗아갔다. 어떤 이들은 토지조사에 대한 총독의 훈령과 고시의 기간을 보지 못해 재산을 잃었다. 토지조사사업은 1918년에 완료되었는데 그 결과 대다수의 농민들이 소작민으로 전락했고 심지어 화전민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1916년 화전민의 수가 무려 24만명에 이르렀다. 일제는 또한 회사령을 발표해서 한국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일본인들이 독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이 제도로 인해 일본기업은 크게 증가했지만 국내기업은 규모와

9) 미국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위원회, “3·1운동비사 (7),” 민경배 역, 『기독교사상』 10 (1970), 100-103.

10)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27.

수에 있어서 영세해졌다. 1911년에는 어업령, 1915년에는 광업령, 1918년에는 임업조사령으로 한국의 어업, 광업, 임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이러한 일제의 국가 전반에 걸친 포괄적이며 가혹한 수탈로 인해 한국은 일본을 위한 식량 및 원료 공급지와 상품시장이 되었다.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은 차별을 당했다. 일제는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을 우민하게 만들려고 했다. 1915년 3월에는 모든 학교에서 일본어 학습이 의무화되고 오직 일본어로만 수업이 진행되도록 만들었다.¹¹⁾ 3·1운동이 전에 이미 나라를 잃은 슬픔과 그로 인한 억울하고 비합리적인 현실에 대한 분노와 불만이 팽배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국의 독립을 갈망했다.

일제의 한국통치의 배경 속에서 기독교의 3·1운동 참여와 관련이 깊은 것은 종교정책이다. 한국종교에 대한 일제의 기본적인 방침은 회유/이용 혹은 탄압/박멸이었다. 종교인들을 회유하여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탄압하고 제거하려고 하였다.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기독교는 특히 한말부터 국권을 회복하려는 애국민족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 대표적인 예가 데라우치 총독 살해음모와 관련된 ‘105인 사건’이다.¹²⁾ 일제는 1911년 10월 12일 평북 선천의 신성중학교 학생 2명을 총독 살해음모죄로 체포한 이래로 4월까지 약 700명 이상의 사람들을 체포, 감금, 고문했다. 이들 중 105명이 1912년 9월 28일 서울지방법원 1심에 의해 유죄선고를 받음으로 105인 사건으로 불리게 되었다.¹³⁾ 체포된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의 비중이 많았는데 유죄판결을 받은 105명 중에 93명(89%)가 기독교 신자였다. 이로 인해 교회는 이 사건을 일제의 기독교 탄압으로 여겼다. 105인 사건에 가담한 많은 기독교인들은 항일운동을 위해 1907년 봄에 결성된 비밀결사단

체인 신민회 소속이었다.¹⁴⁾ 일제는 또한 신도나 조합교회와 같은 일본종교를 장려함으로 기독교를 약화시키려고 했다. 1915년 <포교규칙>을 제정하여 약화를 넘어 기독교를 통제, 장악하려고 하였다. 이 규칙에 따라 모든 기독교 사역자는 반드시 총독부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했고 교회와 관계된 시설을 설립, 변경할 때마다 허가를 받아야 했다. 경관들은 예배, 사경회, 기도회 등 교회의 모임에 수시로 찾아와 감시하고 트집을 잡았다. 일제는 민족·반일 운동과 연계된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경계하여 같은 해에 <개정사립학교규칙>을 공포를 통해 학교에서의 예배, 성경교육, 종교행사를 금지시키기도 했다.¹⁵⁾

일제의 기독교 탄압에 대항하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3·1운동을 항일독립 운동과 더불어 기독교 신앙의 수호와 연결시켰다. 이 점은 1919년 5월 상해에서 작성된 “시사진술서”(時事陳述書)가 잘 보여준다. 목사와 장로 11명이 이 문서에 서명하였다.¹⁶⁾ 이 진술서는 기독교인들의 3·1운동 참여의 동기를 다음의 세 가지로 진술한다. “1. 집회, 전도, 설교, 성경연구, 기도회를 취체하며 선교의 자유를 박탈한 행위 2. 조합교회라는 ‘거짓종교’를 유입시켜 기독교를 파괴하려 한 행위 3. ‘105인 사건’을 꾸며 1백여 기독교 지도자들을 파멸시키려 한 행위.”¹⁷⁾ 기독교인들은 총독부의 기독교 박해가 한국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위협이 근본적으로 일제의 통치라는 현실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곧 교회를 지키며

11)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1910~1960』(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156-59;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27.

1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29.

13) 옥성득, “기독교 민족주의와 105인 사건, 1911-1915,” 『기독교사상』 727 (2019), 185, 188-91.

14)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13-14. 105인 사건, 신민회, 기독교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윤경로, “105인 사건과 기독교 수난: 기소자 122인의 인물 분석을 중심으로,” 이만열 외 편,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서울: 보성, 1986), 285-334; id.,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개정증보판 (서울: 한성대학교 출판부, 2012).

15)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30-31;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159;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19.

16)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35.

17) 『시사진술서』(時事陳述書), 중국 상해, 예수교대표, 1919. 5.,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35-36에서 재인용.

신앙의 자유를 얻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했다. 민족의 자주와 독립의 과제가 신앙의 문제와 별개가 될 수 없었다.¹⁸⁾

일본의 식민지 통치 가운데서 기독교 박해와 함께 우리가 3·1운동의 기독교적 배경으로 주목해 볼만한 것은 교회의 민족운동이다.¹⁹⁾ 19세기 말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침략의 기운이 커지자 이에 대항하여 국내외에서 항일민족운동이 일어났고 그 가운데서 기독교가 큰 역할을 차지했다. 1910년 이전의 기독교 민족운동의 대표적인 단체는 독립협회, 황성기독교청년회(YMCA), 상동교회 엠윗청년회와 청년학원, 연동교회 국민교육회 등이다. 1905년 11월 을사조약을 전후에 상동교회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상동, 연동교회 청년회와 이화학당 학생들이 구국기도회 및 을사조약 무효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전덕기와 더불어 이승만, 이상설, 이준, 김구 등의 ‘상동파’가 다양한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했다. 1907년 정미7조약 이후에는 순국자결과 의병운동이 전개되었다. 장인환과 전명운의 친일파 미국 외교관 스티븐스 저격, 안중근(천주교인)과 우덕순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이재명의 이완용 암살미수 등이 이러한 의병운동의 결과로 일어났다. 1907년 봄에 설립된 신민회는 한말 교회의 민족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제공했다. 이 단체는 독립협회 출신의 안창호와 기독교 민족운동가들의 집속으로 결성되었다. 신민회는 민족 계몽운동을 포함하여 민족교육과 경제를 육성하고 더 나아가 무관학교 설립을 통해서 항일 무장투쟁을 염두에 두었던 강력한 비밀결사단체였다. 1911년 말에 일어난 105인 사건으로 인해 이 단체의 전모가 드러났으며 일제에 의해 집중적인 탄압을 받았다.²⁰⁾

18)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36;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19.

19) 초기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에 대한 탐구를 위해서는 다음의 분석들을 참고하라: 이덕주, 『초기한국기독교사 연구』(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5);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한국기독교 민족운동’의 개념화를 위한 시론,” 『한국기독교와 역사』 18(2003), 115-47; 박용규, “초기 한국장로교회와 기독교민족운동 재평가,” 『신학지남』 77(2010), 95-136; 윤경로, 『105인사건과 신민회 연구』.

20)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18;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11-14.

비록 105인 사건 이후 국내 민족운동은 위축되었지만 그 명맥은 계속 이어졌다. 여성애국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1913년 평양의 숭의여학교 교사 황애덕과 이효덕, 숭현여학교 교사 김경희 등이 ‘송죽회’라는 단체를 조직했다. 송죽회는 매주 기도회 형식으로 비밀모임을 가지면서 독립운동자금 모금, 망명인사의 가족 후원, 민족계몽운동을 전개해나갔다. 이 조직이 3·1운동 때 여성 독립운동 단체들의 지방 연락망이 되었다.²¹⁾

국외에서도 독립운동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미주, 간도, 노령, 연해주 등지에 대한인국민회, 간민회, 대학국민의회 등의 교민단체가 설립되어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군대도 양성되었다.²²⁾ 외국의 민족운동 단체 중에서 3·1 만세운동과 관련해서 주목할 단체는 ‘신한청년당’과 ‘재일본조선청년독립단’이다. 1918년 중국 상하이에서 결성된 신한청년당은 3·1운동의 발생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이들은 1919년 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평화강화회의를 위한 민족대표파견과 독립청원서 작성을 준비했다. 이 단체의 대표로 1919년 2월 한국에 온 선우혁은 선천의 이승훈과 양진백, 평양의 길선주, 강규찬, 이덕환 등을 만나 국제정세를 알리고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그 결과 3·1 운동계획이 시작되었다. 신한청년당은 일본에서의 독립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1906년 황성기독교청년회의 파송을 받은 김정식이 일본 도쿄의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재일한국기독교청년회를 조직했고 그것이 발전하여 1909년 도쿄한인연합교회가 되었다. 이 교회의 청년회 소속의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 재일본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으로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잘 알려진 2·8 독립운동이다.²³⁾

21)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15;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31.

2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31.

23)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21;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31-32.

3. 준비과정과 기독교의 참여

한국인의 독립의지와 함께 3·1 운동을 일으킨 중요한 역사적 요소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원칙 선언과 고종황제의 승하였다.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19년 1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승전연합국의 평화강화회의를 앞두고 미국은 패전국의 지배를 받았던 식민지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자결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18년 11월 말부터 민족자결주의에 대한 소식이 미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신문을 통해서 퍼졌고 비록 일본은 승전국이었기에 이 선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국내외의 여러 민족운동 단체들 사이에서 민족독립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그러던 사이에 1919년 1월 22일 새벽에 고종황제가 갑자기 68세의 나이로 승하였다. 황제의 독살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40일간의 국장기간을 거쳐 3월 3일이 인산일로 정해졌다. 독립 운동가들은 파리 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할 대표를 파견하고 대중들이 모이는 황제의 장례식 전후에 대규모의 민족독립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했다.²⁴⁾

윌슨의 민족자결권 선언의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외의 독립운동단체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각각의 계획을 수립하였다. 3·1 운동은 이러한 조직들의 연합으로 실행되었는데 특히 종교간의 연합, 즉 기독교와 천도교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다. 국외에서는 미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에서 민족단체들이 파리회의를 위한 한국대표를 파송하려고 준비하면서 국내에도 회원을 보내 국제정세를 알려주고 독립운동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상하이 신한청년당의 선우혁과 여운형, 일본 독립청년단의 송계백 등이 1918년 11월에서 1919년 1월까지 한국으로 들어와 기독교 지도자들과 기타 민족주의자들과 접촉했다. 기독교

측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에서 각각 1918년 말 이승훈(서울)과 박희도(선천)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포섭하며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진행하다가 1919년 2월 중순 경에 연합하였다. 처음에는 서울과 선천 두 지방에서 독립운동이 논의되다가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확장되었다. 당시 민족종교였던 천도교 역시 교주 손병희와 최린, 권동진, 오세창 등의 간부들이 상해와 일본에서 온 독립 운동가들과 만나며 1919년 1월부터 대중화, 일원화, 비폭력의 원리로 독립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다. 기독교계와 연합을 추진하자는 최남선의 제안에 따라 이승훈과의 만남을 통해 1919년 2월 초 중순에 독립운동을 민족의 과제로 여기고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천도교 측이 한용운과 백용성 등 불교 승려 두 명을 영입함으로 기독교, 천도교, 불교의 연합이 구성되었는데 실제적으로는 기독교와 천도교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²⁵⁾

이때쯤 서울에서 박희도, 이갑성 등은 기독교청년회, 협성학교, 세브란스 병원을 매개로 강기덕과 김원벽 등 학생 대표들과 만났다. 학생들은 원래 단독의 독립시위운동을 계획했으나 종교계의 권유로 합류하게 되었다. 이로써 종교계, 학생, 국내외 민족운동단체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거국적인 민족저항운동이 준비되었다. 기독교, 천도교, 불교는 33인의 민족대표(기독교: 16명, 천도교: 15명, 불교: 3명)를 선정했고 고종황제의 장례기일 전인 3월 1일 오후 2시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기로 결정했다. 독립선언서는 천도교 측의 최남선이 작성하기로 하고 보성사에서 21,000여장을 인쇄했다. 기독교 측은 선언서를 지방으로 전달했고 학생들도 여기에 동참했다. 또한 현순을 중국 상하이로 보내 평화회의의 대표 파송을 추진하는 신한청년당을 돕도록 했고 안세환을 도쿄로 파송하여 일본정부와 의회에 독립청원서를

25) 이영식, “3·1독립운동과 한국장로교회: 민족대표 장로교 7인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86(2019), 36-38;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23-35; 『한국기독교의 역사2』, 33-36. 3·1운동의 준비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참고하기 위해서는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24-33, 을 참고하라. 이덕주는 이 준비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24)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21-23.

제출하도록 했다.²⁶⁾ 3·1 독립운동은 짧은 기간 내에 다소 비조직, 비체계적으로, 때때로 갈등도 수반되었지만 일제의 폭정과 탄압 가운데서 민족을 구출하려는 굳건한 의지 아래서 종교, 지역, 세대 등을 뛰어넘는 일치된 움직임 속에서 준비되었다.²⁷⁾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으로 가장 많았다.²⁸⁾ 장로교 7명, 감리교가 9명이었다. 장로교 - 길선주, 김병조, 양전백,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감리교- 김창준, 박동완, 박희도, 신석구, 신홍식, 오화영, 이필주, 정춘수, 최성모. 그 당시 장로교는 단일교단이었고 감리교는 미 선교사들에 따라 북감리교와 남감리교도 구성되어 있었다. 북감리교에서 6명(김창준, 박동완, 박희도, 신홍식, 이필주, 최성모), 남감리교에서 3명(오화영, 신석구, 정춘수)이 참석했다.²⁹⁾ 기독교 대표들이 장로교와 감리교로 구성되었지만 교단이라는 조직이 아닌 개인으로 3·1운동에 참여했다. 기독교 민족대표 16명 가운데 3명, 유여대, 길선주, 김병조 목사는 독립선언식 당일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김병조 목사는 망명했고 유여대 목사는 의주에서 독립운동을 주도하고 있었고 길선주 목사는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다.³⁰⁾ 김병조와 유여대와는 달리 길선주의 경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떻게 종교인들이 민족대표가 되었을까? 한말과 일제의 강제합병 후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정치단체, 기구, 조직이 전무하였다. 정치적 색채를

26)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36-54; 『한국기독교의 역사 2』, 36-37

27) 남성들이 3·1운동의 준비, 전개, 발전 등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여성들의 역할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손은실, “3·1운동과 개신교,” 295-307.

28) 기독교 민족대표 16명에 관련하여 참고할 만한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이덕주, “3·1운동 기독교 민족대표 16인에 대하여,” 『한국기독교와 역사』 50 (2019), 141-89; 이영식, “3·1독립운동과 한국장로교회,” 29-11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3·1운동과 기독교 민족대표 16인』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9); 한규무, “기독교계 민족대표 중 누가 변절했는가,” 『기독교사상』 722 (2019), 20-31.

29)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41; 『한국기독교의 역사 2』, 36, 각주 11번.

30)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15.

조금이라도 드러내는 사회단체, 심지어 학술단체도 모두 해산되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천도교 측은 정치단체보다는 개인을 찾기 시작했고 우선적으로 민족성과 성품에서 존경받을 만한 이전의 정치, 사회 지도자들을 만났다. 하지만 윤용규, 한규설, 박영호, 윤치호 등과 같은 이들로부터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³¹⁾ 지식인들 중에는 독립불능론이나 독립시기 상조론을 이야기하기도 했다.³²⁾ 윤치호는 우매한 민중으로 하여금 만세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급한 독립운동보다는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답했다.³³⁾ 정치인들이 마다한 자리를 기독교인들을 포함한 종교인들이 자원하였다. 물론 어떤 이들은 망설이기도 했지만 앞으로 다가올 큰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대표가 되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민족대표로 독립선언서 서명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잃을 위험도 각오하는 것이었지만 그들은 신앙적 용기와 의지로 결단하였고 사회는 이들을 민족의 대표로 받아들여주어 주저하지 않았다.³⁴⁾ 교회는 105인 사건 이해로 일제의 삼엄한 경비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이들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시간도 촉박했고 분명한 기준과 원칙이 세워지지 않은 채 개인적인 친분과 관계를 통해 사람들이 모였다. 서울과 선천뿐만 아니라 개성, 평양, 원산, 경상도, 경기도, 충청도 등지에서 대표자들이 포섭되었다. 노회장과 총회장을 역임했던 양전백 목사를 제외한 모든 목사들은 지역교회의 담임이었고 이승훈, 이갑성, 이명룡은 평신도였다.³⁵⁾ 기독교 대표들은 교회적, 사회적 관점에서 비교적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31)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37.

32)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15.

33) 손은실, “3·1운동과 개신교,” 279.

34) 손은실, “3·1운동과 개신교,” 280-81;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43.

35) 박용규, “3·1독립만세운동과 한국장로교,” 『신학지남』 86 (2019), 11;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42.

민족대표 구성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참여 동기이다. 어떠한 목적과 의도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는지가 이 운동의 본질과 성격을 규정짓는데 결정적인 것이다. 많은 기독교 민족대표들은 민족의 독립과 자주를 외치는 정치적인 운동을 신앙의 행위로 해석하였다. 그들은 강한 신앙적인 동기와 결단에 의해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³⁶⁾ 특히나 그들은 민족의 해방과 그것의 선언식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다. 3.1운동의 전 과정에서 기독교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승훈은 민족의 자결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장에 동참하는 일을 기쁘게 생각했다.³⁷⁾ 그는 1920년 7월 14일 경성지방방법원 특별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이 이 독립운동에 참여한 종교적인 동기를 분명하게 밝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인류를 내실 때 각각 자유를 주었는데 우리는 이 존 귀한 자유를 남에게 빼앗겼다. 자유를 빼앗긴지 10년 동안 심한 고난과 굴욕이 우리를 죽음의 골짜기로 이끌었다. 일본이 오랜 옛날 한국으로부터 입은 은의를 생각하라. 은의를 원수로 갚되 이렇게 심할 수 있느냐? 우리는 최후의 1인 최후의 1각까지 적의 칼 아래 쓰러질지언정 부자유·불평등 속에서 남에게 끌리는 짐승이 되기를 원치 않노라. 우리의 이번 일은 제 자유를 지키면서 남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하늘의 뜻을 받드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³⁸⁾

36) 몇몇은 정교분리의 엄격한 입장을 가졌다.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전 불과 약 일주일 전인 1919년 2월 20일 서울의 영신학당에서 기독교와 천도교 측은 만났다. 여기서 기독교 측의 대표인 정춘수는 기독교의 통일된 입장이라며 이번 운동은 종교와는 상관없이 국민의 자격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37-38, 각주 13번). 이 언급이 정춘수, 오화영과 몇 명의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통일된 입장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과장일 것이다.

37)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44-45.

38) 김기석, 『남강 이승훈』(서울: 한국학술정보, 2005), 224, 이영식, “3·1독립운동과 한국

이만열은 독립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 17:26³⁹⁾에 근거하여 민족의 자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섭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믿었다고 주장한다. 이런 점에서 민족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⁴⁰⁾ 교회는 또한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사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바벨론과 같은 이방민족의 포로가 되었을 때 그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이방민족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었다. 한국의 신자들은 이스라엘과 한국을 동일시하여 이스라엘의 구원사(redemptive history)에서 조국 광복의 비전을 보았고 시편과 예언서에 등장하는 구원을 호소하는 이스라엘의 기도를 자신들의 것으로 삼았다.⁴¹⁾

조선의 독립과 관련된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민족대표들도 공유한 신념이었다. 신홍식, 유여대 역시 조선이 독립국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이라고 이해했다. 박희도는 강한 일본이 약한 한국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순리라고 말했다. 그의 권유로 민족대표가 된 김창준은 기도 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⁴²⁾ 보수적인 신앙의 신석구는 민족대표에 함께 할 것을 권고 받았을 때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을 하는 것과 천도교와의 연합 문제로 주저했다.⁴³⁾ 그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 중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장로교회,” 50에서 재인용.

39)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개역개정판). 이후의 성경인용은 다른 언급이 없는 한 개역개정판이다.

40)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18.

41) 김영재, 『한국교회사』, 개정3판(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215; 박용규, “3·1독립만세운동과 한국장로교,” 13.

42)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45.

43)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41.

내 생각에 두 가지 어려운 것은 첫째 교역자로서 정치운동에 참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둘째 천도교는 교리상으로 보아 상용키 난한대 그들과 합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가 해야 즉시 대답치 아니하고 좀 더 생각하여 보겠다고 하였다. 그 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데 2월 27일 새벽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 ‘사천년 전하여 내려오던 강토를 네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차질 기회에 차져보라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이 직각에 곳 뜻을 결정했다.⁴⁴⁾

민족대표는 아니었지만 평양의 독립운동을 이끈 김선두 목사는 3월 1일 당일 독립선언식에서 이 운동은 하나님이 허락한 선이라고 주장했다.⁴⁵⁾ 그는 여기서 베드로전서 3:13-17과 로마서 9:34⁶⁾을 봉독한 후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독립운동이라는 선을 행하라고 설교했다. 그는 이러한 성경구절에 비추어 억압 속에서 사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민족의 자주와 독립이라는 선을 위해 싸우다가 고난 받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강조한다:

만약 여러분이 열심히 선한 일만 하면 누가 감히 여러분을 해코지

44) 『신석구 자필 자서전』(1949), 86-87,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42에서 재인용.

45) 김승태, “평양에서의 3·1운동과 김선두 목사,” 『기독교사상』 713 (2018), 91-96.

46) 뵤전 3:13-17, “13. 또 너희가 열심히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롬 9: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하겠습니까. 정의를 위하여 수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복된 것입니다. 남들의 위압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무질서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면, 누가 여러분에게 마음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 물어오면, 준비된 마음으로 온화한 태도로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런 도움 없이 양심이 시키는 대로 행동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로 인해 비방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하여도 기독교인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정의로 말미암아 수난을 당한다고 하면, 정녕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악을 행하여 수난을 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진리만 이야기할 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양심에 따라 이야기할 따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함이 나를 위하여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나는 평생 하나의 걱정밖에 없습니다. 나의 피붙이인 형제자매가 망국인이 된 것을 통탄할 뿐입니다.⁴⁷⁾

김선두에 따르면 형제를 위하여 의롭게 싸우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은 신앙적인 행동인 것이다. 3·1운동에 앞장 선 기독교인들은 성경 혹은 개인적인 신비한 체험을 통해 민족항일 투쟁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하였다.⁴⁸⁾

47) 『의세보』, 1919년 3월 27일, 김승태, “평양에서의 3·1운동,” 97-98에서 재인용.

48) 기독교 민족대표 16명 중 7명(길선주, 양전백, 김창준, 이갑성, 박희도, 신흥식, 정춘수)이 ‘독립청원론’을 지지했다. 이들은 강경한 독립선언이 일본과의 무력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독부와 일본정부에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이갑성이나 정춘수는 독립을 대담하게 선언하기에는 자신감이 없어 보였다. 길선주, 양전백, 정춘수는 독립청원의 입장에서 민족대표자 명단에 서명하였다고 말했다. 길선주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처럼 독립운동을 생각했고 정춘수의 경우 독립선언서가 인쇄되고 나서야 독립청원이 선언으로 바뀐 것과 본인의 이름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천도교, 특히 최린은 선언론을 강력

4. 신앙적 실천

1919년 3월 1일 서울의 파고다공원과 태화관을 비롯한 전국의 9개 도시(고양, 평양, 원산, 선천, 의주, 해주, 진남포, 안주, 개성)에서 독립선언식과 만세운동이 일제히 열렸다. 서울의 경우 초기 계획단계에서는 파고다공원이 시위장소로 결정되었지만 불미스러운 일을 염려한 박희도에 제안에 의해 하루 전에 태화관으로 변경되었다.⁴⁹⁾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서 총독부 관리들을 참관하게 하여 거기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불렀다. 그 후 모두 연행되었다. 학생들과 일반 시민들은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행진을 벌였다.⁵⁰⁾ 3·1운동은 불과 두 주 사이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⁵¹⁾ 이덕주는 3·1운동 1년간의 대중투쟁(1919. 3. 1 - 1920. 3. 1)을 세 단계로 구분한다. 3월은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고 4월에는 정부조직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5월부터 1주년까지는 지하 무력투쟁이 되었다.⁵²⁾ 초기 두 달간은 독립선언서 배포, 집회, 만세시위 행진 등의 평화적

하게 지지했다. 천도교 측과의 논의를 통해 이승훈과 함태영 등이 기독교 측을 설득하여 교회 역시 선언으로 운동의 방향을 정했다(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37; id.,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44-47). 이만열과 이덕주는 이들의 주장이 소극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굴종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덕주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민족대표들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롬 13:1의 가르침을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15;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38; id.,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47-48). 비록 독립청원론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하지만 조국의 안위가 달려있는 상황에서 더 확실하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49)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38.

50) 김영재, 『한국교회사』, 210-11.

51)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15.

52) 이덕주, “기독교와 민족운동: 3·1운동 대중투쟁단계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계의 신학』 47 (2000), 130-45.

시위운동이 전개되다가 일제의 폭력적인 진압이 계속되자 독립운동도 무력적인 저항을 시도했다. 일본 경찰은 총과 칼을 사용하여 한국인들을 잔인하게 진압했고 체포된 한국인들은 심한 고문을 당했다. 이에 사람들은 일본 헌병대, 경찰서, 군청, 면사무소, 우편국 등을 습격, 파괴하였고 독립군도 조직하였다. 시위의 준비와 초기 실행단계에서는 종교인, 교사, 학생 등이 중심이었고 독립운동이 진행되면서 노동자와 농민과 같은 대중들이 주체적인 역할을 하였다.⁵³⁾ 3·1운동의 대략적인 참가자 수와 피해규모는 다음과 같다: 전국 218개 군 가운데 212개 군에서 독립시위가 있었고 3-5월간에 약 1,500여회의 집회가 일어났다. 운동에 참가한 수가 200만 명이 넘었다. 일제의 무력진압으로 인해 사망자가 7,509명, 부상자가 15,961명이었고 피검된 자가 46,948명이었다. 가옥이 724채, 교회당이 59채, 학교가 2개가 소실되었다.⁵⁴⁾

기독교인들은 대중투쟁단계에서도 큰 공헌을 하였다. 3·1운동 첫 날 대부분의 독립선언식과 만세운동은 기독교가 중심이 되었고 평양과 의주는 모두 목사들이 주도했다. 운동 주동세력이 뚜렷한 311개 지역 중 기독교 78개, 천도교 66개, 기독교와 천도교 연합이 42개로 비율에서 기독교가 25%에서 38%를 차지한다. 체포와 투옥에서 보면 6월 30일까지 투옥자 9,458명 중 기독교인이 2,087명(22%)이었고, 12월 말까지 19,525명 중에 17%인 3,373명에 달했다. 당시에 한국의 인구가 1,600만 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1.3-1.5%에 해당하는 20만명을 상회했다. 1.3-1.5%에 해당하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의 20-30%를 차지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 운동에 가담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⁵⁵⁾ 교회의 조직은 3·1운동이 전파, 확산되는

53) 김영재, 『한국교회사』, 211;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38-39; 이덕주, “기독교와 민족운동,” 141-42.

54)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16; 김영재, 『한국교회사』, 212. 미국 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위원회는 다른 통계를 제시한다: cf. 김영재, 『한국교회사』, 212.

55)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15-16; 김영재, 『한국교회사』, 212-13;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42-47; 이덕주,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19-20.

데 기여하였다. 장로교의 총회-노회-시찰회, 감리교회 연회-지방회-구역회를 통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독립선언서 전달, 정보교환, 그리고 시위 대중 동원이 이루어졌다. 1918년 당시 장로교는 총회 1개, 노회 11개, 교회 2,005개였고 감리교는 미감리회가 1개 연회, 10개의 지방회, 487개 교회, 남감리회가 1개 연회, 5개 지방회, 238개 교회가 있었다. 기독교청년회 조직과 지방에 연락망을 갖춘 여전도회(장로회)와 여선교회(감리교), 자유롭게 지방을 순회하며 사역했던 매서인과 전도부인도 시위 확산과 정보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교회 외에도 기독교계통의 사립학교도 주요 연락망이었다. 시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휴교령으로 고향으로 흩어지면서 시위가 확산되었다. 교회와 기독교 사립학교가 시위장소로 사용되었는데 교회의 타종이 시위의 시작을 알리기도 했다. 교회는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비롯한 각종 격문, 선언서, 지하신문의 보급로 역할도 했다.⁵⁶⁾

기독교는 시위 참가 수와 전달 및 확산의 방법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저항운동의 이념과 방법론에 있어서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독립선언서에 등장하는 민족의 자주와 독립, 평등과 정의, 민족을 초월한 공동의 번영과 평화는 기독교적인 정신에서 나왔다.⁵⁷⁾ 독립선언서를 작성했던 이는 천도교 측의 최남선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8 독립선언서를 참고하여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만들어 최린에게 주었고 최린은 손병희, 권동진, 오세창 등의 동의를 얻은 후에 기독교 측의 함태영에게 전달하였다.⁵⁸⁾ 천도교가 기초하고 그것을 천도교, 기독교, 불교 측의 대표들이 살펴보고

56) 이덕주, “기독교와 민족운동,” 130-41; id.,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 118-20.

57)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14; 3·1운동의 이념과 독립선언서에 대한 분석은 다음의 연구를 참고하라: 이덕주, “3·1운동의 이념과 운동노선에 관한 연구: 33종의 독립선언서를 중심으로,” 『기독교사상』 32 (1988), 107-23.

58) 오용섭, “「3·1독립선언서」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71 (2017), 199-200. 독립선언서의 작성과정, 원본, 판본, 조판, 전본, 인쇄일 및 인쇄 매수 등에 관한 상세한 분석은 앞의 연구를 참고하라.

수정했다.⁵⁹⁾ 물론 교회의 동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작성과정이 대부분 천도교 측의 주도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선언서가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가? 최남선은 전택부와의 대화에서 이 문서의 기독교적인 기원에 대해 말한다:

당시 나는 의식적인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다. 그리고 천도교신자도 아니었으며 불교 신자도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나는 어려서부터 기독교 서적을 많이 읽었으며 당시의 애국지사들은 대개가 기독교인들이었던 만큼 그들과 자주 상종하는 동안에 자연 기독교적인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나는 본래부터 자유사상이 농후한데다가 독립이니 자유이니 평등이니 정의니 하는 말이 다 기독교에서 나온 말이고 보면 나의 사상에서 기독교적인 요소를 빼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⁶⁰⁾

최남선의 언급이 얼마나 사실을 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어느 정도는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도 기독교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독립선언서 작성과정에 기독교인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3·1운동의 투쟁방법론에서도 기독교의 흔적이 남아있다. 기독교는 비폭력과 평화로운 시위를 주장했고 천도교 역시 독립운동 준비 단계부터 비폭력운동을 핵심원리로 삼았다.⁶¹⁾ 불교 측 역시 비폭력과 평화로운 시위를 강조했다.⁶²⁾ 독립선언서 공약 3장에는 만세운동을 배타적인 마음으로 해서는 안

59) 류대영, 『한 권으로 읽는 한국기독교의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8), 167.

60) 전택부, “삼일운동의 교회사적 의미,” 『기독교사상』 16 (1972), 42-43.

61)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36.

62) 고정휴, “3·1운동의 기억: 비폭력·평화의 관점에서 자료 다시 읽기,” 『한국독립운동사

되며 질서를 지키며 해야 한다고 말한다. 만세 시위가 한창이던 1919년 3월의 어느 날 서울에 뿌려진 “독립단 통고문”은 기독교가 내세운 평화로운 시위를 여실히 보여준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것은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신자는 매일 세 때 기도하되, 일요일은 금식하며, 매일 성경을 읽되,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⁶³⁾

이 통고문은 시위의 참가자들에게 일본인에게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평화롭게 시위할 것을 권하면서 기독교적인 저항방법으로 기도, 금식, 성경묵상을 제안한다. 기도, 금식, 성경 읽기는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복적으로 하던 패턴이었다. 하루에 세 번씩 기도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 왔지만 고국을 위해 세 번씩 기도한 다니엘(단 6:10-28)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때 읽은 성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⁴⁾

연구』 66 (2019), 5-42.

63) 『독립단 통고문』,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39에서 재인용.

64)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40.

요일	분문	내용
월	이사야 10장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앗시리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화	예레미야 12장	유다가 멸망한 원인에 대한 설명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셨다”
수	신명기 28장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침략 받아 고통당하게 되리라는 예언
목	야고보서 5장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인내할 것을 권면
금	이사야 59장	죄 지은 백성들이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예언
토	로마서 8장	성령이 주시는 생명.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성경구절은 작성자(들)이 인식하고 있던 식민통치의 원인과 대응책, 그리고 소망을 알려준다. 그들은 지금의 고통스러운 상황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다. 만일 한국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하고 독립된 한국이 다시 부강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망 속에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의로운 싸움을 할 것을 촉구한다.

1919년 상해로부터 전달되어 평양에 배포된 “한국 내 예수교인 기도제목”은 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기도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⁶⁵⁾

요일	기도 내용
월	우리나라 형편을 위해
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의정원 기관들을 위해
수	부흥사업에 맞추어 전국 인민이 하나 되게
목	독립운동으로 순국한 사람의 유가족과 옥중에 갇힌 자를 위해
금	우리나라가 속히 자유 독립을 얻도록
토	국제연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전 조직되도록
일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스도 진리를 기초로 하나님의 영광을 실현하도록

65) 『한국 내 예수교인 기도제목』, 이덕주, “기독교와 민족운동,” 134, 각주 19번에서 재인용.

일본의 경찰과 군인은 평화롭게 시위를 하고 있는 대중들을 잔혹하게 대했다. 진압을 위해 총과 칼을 사용하고 칼집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사정없이 구타했다. 여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없었다. 욕설을 퍼붓고 주먹과 몽둥이로 폭행하고 벌거벗겨 조사를 받게 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여자들을 담뱃불과 달궈진 쇠덩이로 지졌다.⁶⁶⁾ 이러한 야만적인 폭력 앞에서 시민들 역시 폭력적으로 대응하기도 했고 3·1운동이 지하로 내려가면서 독립군도 동원되었지만 기독교인들은 “독립단 통고문”이나 “한국 내 예수교인 기도제목”과 같은 문서들을 돌리면서 비폭력의 정신을 지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덕주의 주장처럼 그 이면에는 원수를 사랑하며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주라는 예수의 가르침(마 5:38-48)이 작용했을 것이다.⁶⁷⁾

5. 나가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해석사적인 관점에서 3·1운동에 접근하였다. 3·1운동은 1918년 말에서 1919년 초까지의 상황, 즉 닉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와 고종 황제의 승하를 배경으로 일어났다. 하지만 이 운동은 근본적으로 일제의 강압과 폭정으로 인한 한국인들의 독립의지에서 기인하였다. 약 두세 달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1919년 3월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9개의 도시에서 독립선언식과 만세운동이 진행되어 이후 1년 동안 국내외에서 독립운동이 계속되었다. 3·5월까지만 해도 약 1,500이상의 집회가 일어났고 시위 연 참가인원이 200만 명 이상에 달했다. 3·1운동은 종교, 지역, 나이, 성별 등의 구별을 초월한

범국민적인, 거족적인 저항운동이었다. 민족의 독립과 자주라는 이념 하에서 비폭력 저항시위로 시작하여 임시정부 설립과 독립군 운동으로 이어졌다. 비록 일제의 잔인한 진압으로 가시적인 성공은 거두지 못했지만 그 이념과 숭고한 희생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꽃피고 오늘날까지 계속 전해져오고 있다.

기독교는 3·1운동의 준비와 실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민족대표 33인 중 기독교인은 16명이었고 당시 한국의 인구 중 1.3-1.5%에 해당하던 기독교인들이 3·1운동 참가자의 20-30%를 차지하였다. 교회는 이미 일제의 지배육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던 구한말부터 민족의 독립과 장래를 위해 민족운동에 헌신하고 있었다. 3·1운동은 민족의 고통과 아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했던 이전 교회의 움직임의 연속이었다. 교회와 기독교 사립학교는 3·1만세운동의 실행과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 교회의 조직과 여러 기관들, 그리고 독립적인 사역자들을 통해 3·1운동이 재빠르게 확산되었다. 기독교인들은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및 각종 문서들과 소식지, 신문 등을 전달했다. 만일 기독교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3·1 독립운동은 큰 어려움에 겪었을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현상뿐만 아니라 3·1운동의 이념과 정신, 방법론, 그리고 거기에 동참한 그리스도인들의 동기 등도 기독교 신앙 및 가르침과 깊은 연관을 가졌다. 기독교 민족대표 16인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동기와 목적에서 민족독립운동에 합류하였다. 그들은 일제의 탄압 속에 교회를 향한 핍박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족의 독립은 곧 신앙의 자유를 얻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으로 여겼다. 또한 그들은 사도행전 17:26에 따라 민족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것으로 믿었다. 따라서 독립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었다. 김선두 목사는 베드로전서 3:13-17과 로마서 9:3에 따라 3·1운동은 하나님이 허락한 의로운 싸움이라고 여겼다. 어떤 이들은 성경의 구원사와 이스라엘의 해방사를

66) 임희국, “1919년 3·1운동에 대한 재(再)인식: 선교사들의 현장기술체록과 장로교회 총회 회의록(제8회, 1919)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8 (2019), 311-15.

67)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141.

읽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해방을 주실 것을 염원하였다. 현실의 고통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 회개를 촉구했다(이사야 10장; 예레미야 12장; 신명기 28장; 야고보서 5장; 이사야 59장; 로마서 8장).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성경구절에 근거하여 3·1운동을 종말론적, 묵시론적으로 이해했을 것이다.⁶⁸⁾ 3·1운동이 지향하는 민족의 자주와 독립, 평등과 정의, 민족을 초월한 공동의 번영과 평화 역시 기독교 가르침과 연관이 있다. 이념뿐만 아니라 운동의 실행도 마태복음 5:38-48이 말하는 원수 사랑의 가르침에 근거한 비폭력적인 시위와 더불어 기도와 말씀묵상, 금식으로 이루어졌다. 외적인 요소들뿐만 아니라 3·1운동의 이념과 방법론,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동기 면에서도 성경의 영향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3·1운동은 단지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정치, 사회적인 운동만이 아닌 기독교 신앙에 바탕을 둔 저항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이러한 기독교적인 동인이 없었다면 3·1운동을 기독교 신앙운동이라고 규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신앙 없이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민족운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⁹⁾

물론 3·1운동 전체가 곧 기독교적 운동이라는 인식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3·1운동에서 기독교의 역할이 큰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이 운동이 민족 공동의 과제였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1운동은 기독교를 비롯한 천도교, 불교 등의 종교계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계층의 사람들이 만든 대중운동이다. 그 대중 운동 가운데 기독교는 많으면 3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당시 한국사회의 전체의 맥락과 상황 속에서 3·1운동을 파악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역사서술이 필요하다.⁷⁰⁾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정치, 사회적 운동을 성경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곧 일반역사에 기독교의 정신을 불어넣어 기독교 신앙 운동으로 변혁한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의 입장에서 볼 때 3·1운동을 교회와 연관 짓는 것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이해에 우리는 한국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을 고찰해봐야 한다. 교회는 공적인 영역에서 사회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물음 앞에 한국교회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⁷¹⁾

68) 외국의 침략이나 지배를 받을 때 기독교 묵시문학이 발달한다. 스트리커(Ryan W. Strickler, "Coping with Crisis: Invasion, Defeat, and Apocalyptic Discourse in Seventh-Century Byzantium" (PhD Diss.: Marquette University, 2018), 는 7세기의 묵시적 담론을 아랍의 침략으로 일어난 위기를 극복하는 '위기대처문학'으로 간주한다.

69) 향후 3·1운동 관련 1차 자료를 분석하여 성경해석의 영향을 찾는 작업이 필요하다.

70) 이해정, "삼일운동 재평가의 논점과 개신교의 민족의식: 개신교가사를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51 (2019), 88-89.

71)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책을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장동민, 『포스트크리스텐덤 시대의 한국 기독교』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최종원, 『텍스트를 넘어 콘텍스트로: 한 인문주의자의 사회와 교회 읽기』 (서울: 비아토르, 2019).

참고문헌

- 고정휴. “3·1운동의 기억: 비폭력·평화의 관점에서 자료 다시 읽기.” 『한국독립운동사연구』 66 (2019): 5-42.
- 김승태. “평양에서의 3·1운동과 김선두 목사.” 『기독교사상』 713 (2018): 91-100.
- 김영재. 『한국교회사』. 개정3판. 수원: 합신대학원출판부, 2009.
- 김태형. “삼일운동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력: 신학, 심리학, 그리고 목회상담적 관점.” 『장신논단』 51 (2019): 39-59.
- 류대영. 『한 권으로 읽는 한국기독교의 역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8.
- 미국기독교연합회 동양문제위원회. “3·1운동비사 (7).” 민경배 역. 『기독교사상』 10 (1970): 100-104.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 1910-1960』.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_____. “3·1독립만세운동과 한국장로교.” 『신학지남』 86 (2019): 7-28.
- _____. “역사 사료적으로 살펴본 3·1운동 관련 ‘문헌.’” 『신학지남』 86 (2019): 113-89.
- 서원모. “성경 해석과 역사- 시리아 설교 “요나와 니느웨인의 회개”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사학회지』 10 (2001): 58-89.
- 손은실. “3·1운동과 개신교: 선교사들의 공감적 선교와 여성 독립 운동가들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7 (2019): 273-314.
- 오용섭. “『3·1독립선언서』의 서지적 연구.” 『서지학연구』 71 (2017): 197-216.
- 옥성득. “기독교 민족주의와 105인 사건, 1911-1915.” 『기독교사상』 727 (2019): 185-96.
- 이덕주. “3·1운동에 대한 신앙운동사적 이해.” 『기독교사상』 34 (1990): 133-56.
- _____. “기독교와 민족운동: 3·1운동 대중투쟁단계에서 기독교인들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계의 신학』 47 (2000): 127-48.

- _____. “3·1운동과 기독교: 준비단계에서 이루어진 종교연대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47 (2017): 107-63.
- 이만열. “3·1운동과 기독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7 (1997): 7-20.
- 이영식. “3·1독립운동과 한국장로교회: 민족대표 장로교 7인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86 (2019): 29-112.
- 이혜정. “삼일운동 재평가의 논점과 개신교의 민족의식: 개신교가사를 중심으로.” 『신학과 목회』 51 (2019): 79-105.
- 임희국. “1919년 3.1운동에 대한 재(再)인식: 선교사들의 현장구술채록과 장로교회 총회 회의록(제8회, 1919)을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48 (2019): 303-33.
- 전택부. “삼일운동의 교회사적 의미.” 『기독교사상』 16 (1972): 42-49.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2』. 개정판. 서울: 기독교문사, 2011.
- Froehlich, Karlfried. “Church History and the Bible.” *Princeton Seminary Bulletin* 1 (1978): 213-24.